

민화를 통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제작

- 보고논문 -

A Conceptual Exercise on Pattern in Textile Design Works

- Working Report -

주저자 : 허문영(Heo, Moon Young)

강원대학교 디자인학과 석사과정

교신저자 : 최인숙(Choi, In Sook)

강원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cccinsook@kangwon.ac.kr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민화(民畵)의 가치
- 2.2. 민화요소의 의미
- 2.3. 텍스타일 패턴의 이해

3. 민화를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및 연구

- 3.1. 디자인방법
- 3.2. 텍스타일 디자인 제작
- 3.3. 민화의 내재된 의미에 따른 상품개발의 방향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요약)

본고는 보고논문이다. 민화(民畵)를 소재로 내재된 의미에 어울리는 적절한 패턴 디자인을 창출하고, 그에 어울리는 상품개발의 방향성을 타진했다.

문헌과 기존 연구들을 통해 연령별로 선호하는 색감과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절한 민화의 소재를 선택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책가도(冊架圖), 어해도(魚蟹圖), 십장생도(十長生圖)를 이용하여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후 개발된 패턴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창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민화는 제한된 범위에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디자인의 재해석 과정을 통해 무궁무진한 디자인의 모티브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민화는 가장 한국적이고, 우리민족의 정서를 잘 담고 있다. 민화의 파격적인 구도와 묘사의 독특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간다면 낯게 느껴졌던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민화, 텍스타일, 디자인

(Abstract)

As globalization accelerates, the economic and social boundaries between nations are gradually disappearing. As a result, the boundaries of design diminish and the

country's design identity becomes blurred.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Wave is attracting worldwide attention, and Korean contents are affecting far away continent of Europe and the Americas beyond China and Japan. However, when Korea's cultural contents are attracting more attention than any other era, Korea's design development is still insufficient to reach to this dimension. More the border is blurred, more emphasis is placed on the importance of locality.

Among them, the material of folk painting is the most Korean-esque and it contains a great meaning in the history because it contains the emotion of our nation. If the fancy painting of the folk painting and the unique sensitivity of the description are solved in a modern way, it will become a stepping stone to re-examine the traditional culture of our country which was felt old. We have created suitable pattern design suitable for the meaning of folk painting and suggested direction of product development to match it.

Recognizing that the preference on color and design are different by age and referencing to literature on the same objects, I explore to new conception on textile pattern design. The Chaekgado (paintings of writing supplies), Eoaedo (paintings of fishes), Sipjjangsaengdo (paintings of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age focused especially.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folk paintings can be utilized as a motif of an unlimited design through the process of reinterpretation of design, rather than staying in the limited quantity in the past.

Keyword : Korean Folk Painting, Textile, Design

1. 서론

국가 간의 경제·사회적 경계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요즘 국가 간의 디자인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트렌드의 흡수율도 점점 빨라지면서 사실상 디자인의 국가별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한류(韓流)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일본에서만 반응을 보였던 한류가 점차 유럽, 미주의 먼 대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어느 시대보다 한국의 콘텐츠가 주목받는 시점에서 한국 고유의 디자인 개발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국경이 희미해질수록 오히려 로컬, 즉 가장 한국적인 것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한국 고유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계속 되어왔다. 즉 돌실나이의 세컨 브랜드인 “꼬마크(Ccomaque)”의 론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의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데일리스타일과 타협점을 찾아 간편한 디자인으로 한복을 개량하였고, 다양한 패턴, 특히 십장생도를 펜아트 형식으로 풀어내어 한복을 대중적이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시도하였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이러한 생활한복 등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전통성에 대한 시선도 더 이상 ‘진부하다’가 아니라 ‘신선하다’라는 인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미루어볼 때 가장 한국적인 것을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그 의미와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전통적인 민화를 소재로 글로벌하게 확대, 적용시켜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한국의 로컬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디자인의 모티브로 선정한 민화는 가장 한국적이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파격적인 구도와 묘사로 독특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풀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민화를 소재로 그 내재된 의미에 상응하는 적절한 패턴 디자인을 창출하고, 그에 어울리는 상품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고는 민화를 모티브로 하여 다양한 상품들에 적용할 수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패턴 디자인)을 제안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민화의 가치

민화는 조선 후기 서민층에서 유행하던 정통회화의 조류를 모방하여 생활공간의 장식을 위해,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화(實用畵)를 말한다. 민화는 한국의 대중적인 예술 형태를 반영하는 문화예술 콘텐츠이다.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이미 국경의 의미가 모호해질 만큼 디자인의 트렌드는 범지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안에서 유니크한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시 국경을 나누어 물입하게 된다. 즉 그 나라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스코틀랜드의 기즈(Patrick Geddes)가 1913년에 제창했던 ‘Think global, Act local’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국내에 맞게 행동하라)에서 유래된 오늘날의 글로벌리즘(Glocalism)이 그런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디자인 강국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시점에서 한국의 색깔을 가장 잘 지닌 민화의 디자인적인 연구와 현대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 민화라는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글로벌한 디자인과 상품의 개발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창출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범위에 머물고 있는 민화 작품들의 감각적이고 파격적인 특징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진행한다면 진정으로 민화의 가치를 드러내고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을 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2. 민화 요소의 의미

민화는 화조영모도, 어해도, 작호도, 십장생도, 산수도, 풍속도, 고사도, 문자도, 책가도, 무속도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중에 책가도, 어해도, 십장생도 3가지를 분석한다.

2.2.1. 책가도(冊架圖)

책가도 또는 책거리라고 칭하는 민화 종류 중 하나로, 책, 부채, 향로, 도자기 등을 화재(畵材)로 그린 그림이다. 예로부터 조선은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학덕이 높은 사람을 가장 우대했다. 그러나 조선에는 책이 아주 귀해서 책을 많이 소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때문에 책 대신 책이 가득 찬 책꽂이를 그

려놓은 것을 방안에 들어 놓음으로써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듯한 과시욕과 책(학문)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책가도를 공부방 안에 둠으로써 6판서에 이르는 모든 벼슬을 거쳐서 높은 관직에 오르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그림1] 책가도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사이트

2.2.2. 어해도(魚蟹圖)



[그림2] 어해도

출처 :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 자료집

어락도(魚樂圖)라고도 한다. 어해도에 그려지는 물고기는 바닷고기와 민물고기의 구별이 없다. 다양한 물속의 동물들이 물속의 바위나 해초 곁, 또는 꽃나무 아래에서 쌍쌍이 짝을 지어 평화롭게 노는 장면들을 주로 그렸다. 따라서 어해도에는 동양인의 우수사상(偶數思想)과 공합사상(宮合思想) 및 범신사상(汎神思想)이 깃들어 있다. 풍요·다산·다복을 기원하여 젊은 부부들의 방을 장식하는데 애용되었다.

2.2.3. 십장생도(十長生圖)

십장생도는 장수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상징

한다. 통상 10가지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13가지 정도의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그림3] 십장생도, 안중식(1861-1919)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표1] 십장생도의 소재의 상징성

해	해는 달, 별 등과 함께 천체의 일부이면서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또한 달과 함께 음양을 상징하여 자연법칙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달	달은 음양에서 음을 상징한다. 해가 만물을 낳는다면 달은 이를 기르며, 해가 타오르는 불의 기운이라면 달은 차가운 수 기운을 상징한다. 이렇듯 음양의 두 축을 이루지만 일월오봉도와는 달리 숲의 자연스러운 장면을 위해 해와 함께 그림에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구름	구름은 해, 달과 함께 하늘을 구성하는 자연물 이면서 동시에 비를 부른다는 점에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다. 또한 구름은 비를 몰아온다는 점에서 풍년과 행운을 상징하고, 신선 세계로 이어준다는 점에서 장생을 상징하게 된다.
산, 돌	십장생도에서 산과 돌은 같은 상징성을 지녀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소재이다. 산과 암석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변함과 영속성을 상징화한다. 특히 산은 신선들이 노닐던 선계(仙界)를 상징하기도 한다.
물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십장생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음양으로 보자면 음, 여성을 의미하고, 따라서 생명의 생산력과 관계가 있다.
학	십장생에서 학, 사슴, 거북이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물 소재이다. 이들 동물 소재는 짝수로 그려졌는데 부부화합과 가족화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학은 일찍부터 신선의 탈 것으로서 장수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사슴	사문유취 中 “사슴은 능히 천년을 살면 푸른 사슴, 일명 창록이 되고 백년이 되면 백록이 되며 오백년이 되면 현록이 된다고 하였다” 이 구절에서 사슴은 장수의 상징이 되었다.
거북	거북은 중국의 장생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십장생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이다. 실제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장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소나무	소나무는 계절이 변해도 잎의 색이 변하지 않고 장생하므로 절개, 장수, 번성 등의 뜻을 가진다.

출처 : 한국의 미술과 산림문화, 산림청

2.3. 패턴 디자인의 개념

텍스타일이란 본래 ‘직물’ 또는 ‘직물 원료’ 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 중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이란 디자인의 요소를 이용하여 디자인의 원리에 따라 패턴 제작 및 직물 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구매결정 요인에서 기능성을 중점으로 소비를 했다면 현대의 소비자들은 상품의 디자인적인 요소와, 상품의 이미지에 포커싱을 맞춰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

텍스타일은 하나의 컨셉으로 다양한 제품군, 판촉물, 홍보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같은 형식의 패턴 혹은 질감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나타 낼 수 있기 때문에 텍스타일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제품디자인 이외에도 도시디자인에도 텍스타일 디자인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4] 멜버른 도시디자인에 사용된 패턴디자인
출처 : 월간디자인 2016년 9월호

[그림4]에서 볼 수 있듯, 멜버른은 가장 성공적인 도시개발디자인 사례로 꼽힌다. 볼드한 형태의 M을 로고로 만들고, 필요한 분위기에 맞게 다양한 패턴을 입혀 사용하기도 하고, 수많은 M을 패턴처럼 나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그림5]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적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패턴디자인을 하여 인테리어에 적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텍스타일 디자인의 방향은 무궁무진하고, 패션, 시각, 건축 등을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형태의 디자인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5] 민화를 활용한 인테리어용 텍스타일 디자인
출처 : DSG 대동벽지, 벽지시리즈 청연 Vol.2

3. 민화를 이용한 패턴 디자인개발 및 연구

3.1. 디자인방법

소비자행태조사(2008)의 자료에 따르면 10대는 남녀를 불문하고 학업에 관심이 많았다(남 62%, 여 58.1%). 그리고 20대~30대는 취직과, 결혼, 육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년층으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공통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관심도는 곧 민화의 소재에 대한 선호도와 상관적일 것이다.

이에 따라 학업과 취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에게는 입신양명의 의미를 담은 책가도를 활용, 색채 선호를 주사하여 이를 패턴 디자인 제작에 적용하였다. 결혼생활과 가정을 꾸려나가는 장년층에게는 부부의 금슬과 풍요를 의미하는 어해도를 활용, 같은 방식으로 패턴 디자인에 적용하였으며,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노년층에게는 장수의 의미를 담은 십장생도를 활용해, 그들이 염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소재를 채택하였다.

[표2] 연령별 선호 색채 이미지 스케일

	남자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사례수(명)	3,055	410	604	713	701	627
건강	19.8	1.2	4.1	10.9	24.7	41.7
자녀양육	8.6	0.5	1.5	15.8	17.2	2.9
재산증식	11.3	0.7	4.6	20.8	18.1	6.1
학업성적	10.2	62.0	9.4	0.1	0.0	0.0
결혼	6.9	0.0	16.1	13.7	2.0	0.5
취직	5.1	2.2	20.0	2.5	0.9	0.5
	여자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사례수(명)	2,945	365	565	689	688	638
건강	21.6	0.1	3.2	10.3	25.9	57.2
자녀양육	22.5	0.0	10.6	51.5	32.4	3.9
재산증식	9.2	0.3	4.8	14.1	15.8	5.6
학업성적	8.5	58.1	6.9	0.0	0.0	0.0
결혼	4.1	0.3	16.5	3.0	0.4	0.6
취직	3.6	2.7	14.5	1.3	0.3	0.5

출처 : 소비자행태조사(MCR). 2008

컬러는 전체적으로 민화의 특성을 담은 컬러를 사용해야 하지만 구매자의 연령별 성향에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선호하는 컬러에 맞는 컬러와 무드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디자인의 전개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스퀘어 드롭 패턴(square-drop pattern)과 가장 안정적인 형태감을 보여주는 헥사곤 패턴(hexagon pattern)을 이용하였다.

3.2. 텍스타일 디자인 제작

3.2.1. 연령에 따른 선호 색채와 디자인 조사

연령별 색채선호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2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주로 활동적이며 밝은 색상을 선호하고 있으며, 검정색과 흰색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난다(배한나, 2004, p. 107).



[그림6] 연령별 선호 색채 이미지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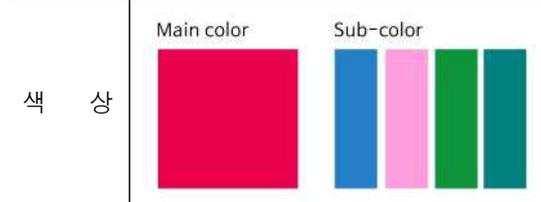
25~29세에서는 24세 이하와 비슷한 색채 선호도를 보이나 24세 이하의 연령대보다 정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선호한다. 또한 35세 이상은 딱딱하고 역동감 있는, 그리고 동적인 이미지 영역을 선호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령별 선호색채와 분위기에 맞게 다음과 같이 텍스타일 디자인을 시도해 보았다. 위의 [그림6]은 김수예(2012)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해석하여 제작한 연령별 선호색채 이미지 스케일이다.

3.2.2. 책가도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표3] 디자인 A 개요

제 목	新책가도
모 티 브	책가도
기 법	디지털 프린팅
배열방식	원리핏 패턴
타 겿	24세 이하 학생, 청소년



[그림7] 디자인 A

본 디자인은 책가도를 모티브로 현대적인 재해석을 한 디자인이다.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으로 활동적이고 쾌활한 색상을 믹스하였고, 중간 중간에는 무채색을 이용해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패턴에 여백을 주었다. 또한 보색대비와, 한난대비의 색감을 적절히 이용하여 경쾌하고 율동감 있는 패턴을 완성해 보고자 하였다

현대의 서재에서는 전자기기(노트북, 스마트폰)

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때문에 책과 함께 전자 기기도 함께 패턴에 넣어 팝스타일의 감성을 표현하였다. 아래는 디자인 A의 디테일과 컬러웨이이다.



[그림8] 디자인 A의 디테일, 컬러

3.2.3. 어해도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표4] 디자인 B 개요

제 목	연못				
모 티 브	어해도				
기 법	디지털 프린팅				
배열방식	원리핏 패턴				
타 겿	20대 후반, 부부				
색 상	<table border="0"> <tr> <td>Main color</td> <td>Sub-color</td> </tr> <tr> <td></td> <td>     </td> </tr> </table>	Main color	Sub-color		   
Main color	Sub-color				
	   				



[그림9] 디자인 B

어해도를 모티브로 20대 후반 이상의 부부를 위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어해도의 다양한 소재 중 가장 자주 보이는 ‘잉어’와 ‘계’를 모티브로 설정하여 라인 일러스트를 제작한 뒤, 패턴워크를 진행하였다.

물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곡선의 스트라이프 스타일로 배경의 질감을 표현하였고, 그 위에 일러스트로 제작해 두었던 잉어와 계의 이미지를 얹었다. 그리고 잉어의 실루엣을 그림자처럼 넣어 물의 깊이감을 나타내었다.

컬러는 대체적으로 차분하고 정적인 톤을 사용하였고, 비슷한 톤 안에서 다양한 컬러의 변주를 넣어 풍부함을 살렸다. 아래는 디자인 B의 디테일과 컬러 웨이이다.



[그림10] 디자인 B의 디테일, 컬러

3.2.4. 십장생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민화의 자유분방함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과격성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표현방법으로 십장생도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십장생의 요소들을 실사 이미지를 토대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을 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얼핏 보기에는 화려한 문양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십장

생의 요소들이 적절하게 겹쳐져서 하나의 색감으로 보여지는 디자인을 하였다.

소나무의 잎과 영지버섯의 이미지를 좌우 대칭으로 겹쳐서 배경의 톤을 구성하였고, 그 위에 시슴, 학, 거북 등 십장생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포토샵 블렌딩 효과(photoshop blending mode)를 적절히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40대 이후를 타겟으로 디자인을 하였기 때문에 앞서 디자인한 [디자인 A], [디자인 B]에 비해 더 과감하고 색감도 더욱 풍성하고 깊게 디자인하였다.

[표5] 디자인 C 개요

제 목	永生				
모 티 브	십장생도				
기 법	디지털 프린팅				
배열방식	사이드 리핏				
타 겟	40대 이상 중장년				
색 상	<table border="0"> <tr> <td>Main color</td> <td>Sub-color</td> </tr> <tr> <td></td> <td></td> </tr> </table>	Main color	Sub-color		
Main color	Sub-color				



[그림11] 패턴 디자인 C



[그림12] 디자인 C의 컬러웨이



[그림13] 디자인 A의 맵핑

출처:<http://www.gbobbd.com/wp-content/uploads/sites/17/2015/05/>
<http://www.freepik.com/free-photos-vectors/case>

3.3. 민화에 내재된 의미를 활용한 상품 개발의 방향

앞 장에서 예시한 세 가지 디자인을 통해 각 연령대별 타겟에 맞게 텍스타일 디자인을 시도해 보았다. 연령별로 선호하는 색감과 함께, 그 연령에서 가장 관심사로 가질만한 의미를 내포한 민화를 설정하여 맞춤형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디자인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각 연령에 어울리는 상품과 묶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개발한 디자인을 기존의 제품에 합성을 하는 맵핑 작업을 진행하여, 디자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3.3.1. 디자인 A를 활용한 아이템 구상

디자인 A는 24세 이하의 학생들과 청소년을 타겟팅하여 진행한 작업으로,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상품과의 매치를 제안한다. 학생들의 소비스타일에 맞게 문구용품, 폰 케이스 등 가볍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3.3.2. 디자인 B를 활용한 아이템 구상

디자인 B는 20대 후반 이상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진행한 것으로, 가정을 꾸린 부부도 이 범주에 포

함된다. 때문에 이불, 베게, 쿠션 등의 인테리어소품과 파자마 등 홈패션에 포커스를 맞추어 상품을 디자인 한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그림14] 디자인 B의 맵핑

원본 출처 : <http://infoz.info/detail/850/zod-classic-stripe-bedding-collection.html>

3.3.3. 디자인 C를 활용한 아이템 구상

디자인 C는 40대 이상을 타겟으로 한 디자인답게 화려하다. 40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카프나 손수건 등의 제품에 패턴의 대칭적인 특징을 활용하여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15] 디자인 C의 맵핑

원본 출처 : <https://www.elleandriley.com/collections/accessories>

[표6] 민화를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디자인 A	디자인 B	디자인 C
타겟	24세 이하	20대 후반이상	40대 이상
전통 민화	(冊架圖)	(魚蟹圖)	(十長生圖)
디자인			
컬러 웨이			
적용 가능 상품	문구용품 폰 케이스 파우치 수첩	이불 베게 쿠션 파자마	스카프 손수건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민화를 소재로 그 내재된 의미에 어울리는 적절한 패턴 디자인을 창출하고, 그에 어울리는 상품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국 민화의 전통적의 모습을 재해석하는 연구를 통해 명확한 대상화를 설정, 디테일한 디자인 연구를 구체화 시켰다. 문헌과 기존 연구들을 통해 연령별로 선호하는 색감과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절한 민화의 소재를 선택하고,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현 단계는 민화를 다양하게 재해석하여 텍스타일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상품 군에 적용을 시키려는 구상 단계의 단편 논문으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장편 논문으로 연구를 구체화시키는 단계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논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실제 상품을 제작하고 수요층에 대한 설문조사 등 객관성을 가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를 한층 더 풍성하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디어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래의 우리의 것을 활용한 디자인 연구와 문화 콘텐츠 사업의 중요성은 점점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디자인의 수준은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한국의 아이덴티티(Korea Identity)’를 베이스로 하는 디자인 산업은 많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것을 무기로 삼고, 세계화 시장에 뛰어들면 한국의 디자인산업의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수예 (2012) 선호색과 명화배색의 상관관계를 통한 20대 색채마케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논문.
- 배한나 (2004) 선호색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색채 감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 숲과문화연구회 (2106) 한국의 미술과 산림문화. 서울: 거목문화사
- 柳宗悅 (1959). 불가사의한 조선민화. 민예民藝, 제 80호.
- 이광주, 2015.11.23. 돌실나이, 내년 ‘꼬마크’에 집중. Fashionbiz.
- DESIGN LOG. Retrieved 2012.12.30 from <http://www.designlog.org/2511930>

전자우편: cccinsook@kangwon.ac.kr

원고접수일: 2017년 5월 24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11일

게재결정일: 2017년 6월 22일

3명의 익명(匿名)에 의한 심사.